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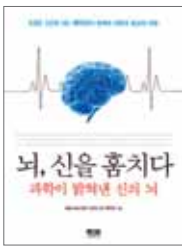
우연한 생
정길연 지음

인간관계 그린 단편 7편

장편소설 '변경'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정길연 작가가 8년 만에 신작 소설집 '우연한 생'을 선보였다. 올해로 단 31주년을 맞은 작가답게 특유의 명확한 문장과 섬세한 심리묘사가 돋보인다. 이번 작품집에서 정 작가는 일그러진 가족, 연인관계를 중심에 둔 일곱 편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연민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여성, 속악한 세상이 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작품을 읽다보면 세상의 고통이 그대로 전이되는 공감의 느낌을 갖게 된다.

방민호 평론가는 "삶과 사랑의 문제들을 인생이라는 불가사의하고도 불가피한 과정으로 그려내는 이 작가의 시선은, 섬세하다 못해 주뿔하다"고 평한다.

〈은행나무·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뇌, 신을 훔치다
KBS '신의 뇌' 제작진 지음

신의 거처는 인간의 뇌?

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다. 물론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신을 만났거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14년 방영되었던 KBS '신의 뇌'를 바탕으로 책이 출간되었다. 제작진은 공중파라는 특성상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충실하게 채웠다. 저자들은 신과 인간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답, 그리고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접했을 법한 실존적 고민, 이에 대한 자료 목록을 담았다.

최첨단 과학은 신의 거처는 인간의 '뇌'라고 본다. 그렇다고 과학은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400여 년 전 철학자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고 했다. 물론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몫이다.

〈인물과사상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의사·과학자·화가... '문예 부흥' 이끈 전문지식인

조선의 중인들

허경진 지음



"김수평이 어느 날 서류를 걸쳐 받고 판서의 집으로 찾아갔다. 판서는 마침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김수평이 결재해 달라고 청했지만, 판서는 머리만 끄덕일 뿐 여전히 바둑만 두었다. 수평이 섬뜩에 뛰어올라가 손으로 바둑판을 쓸어버리고, 뜰로 내려와 아뢰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랏일은 늦출 수가 없으니, 저를 파직시키고 다른 아전을 시켜서 결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즉시 하직하고 나가버렸다. 판서가 쫓아와 사과하며 그를 붙들었다." (본문 중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동시통역사, 공인회계사 등은 조선시대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오늘 날에도 '사(師, 士)' 자 돌림은 여전히 선망의 직종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들은

한낱 중인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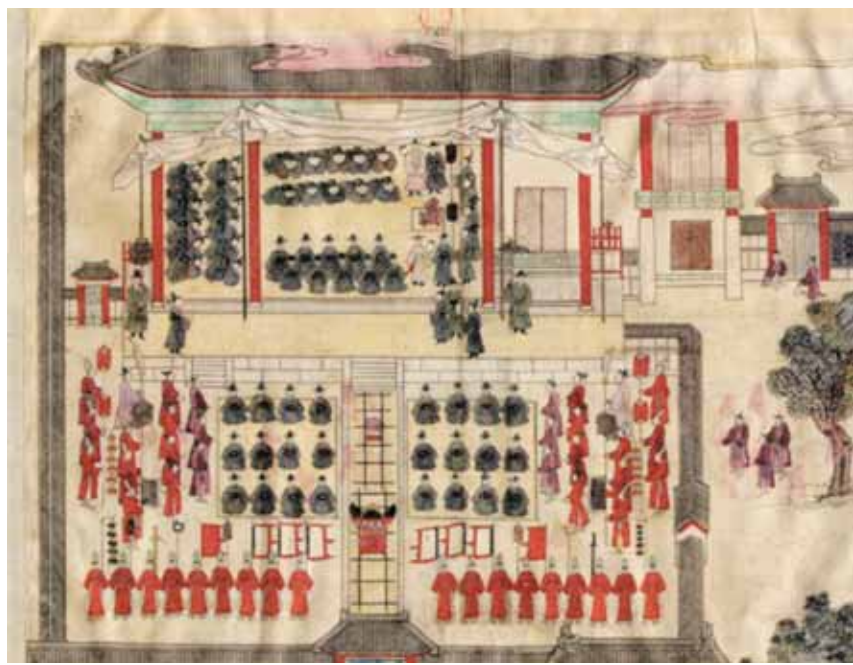
조선시대 신분 계층은 양반, 중인, 평민·천민으로 나뉘었다. 중인(中人)은 글자 그대로 양반과 평민 사이의 중간 계급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평민이나 천민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계급에 지나지 않았다.

관원인 중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치러야 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들은 평생 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했다. 자연히 한 곳에서 근무하므로 전문성이 뛰어났다.(승진할 때마다 다른 관청으로 옮기는 양반과 근무 방식이 달랐다.)

일례로 왕의 진료를 책임지는 내의원 경우만 하더라도 책임자인 도제조는 재상이 겸하고 부제조는 승지가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문 역할만 했을 뿐, 정작 치료는 의원이 담당했다. 한마디로 중인은 관청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전문가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중인을 선발하는 과거를 잡과(雜科)라 천시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생원과 진사 합격자에게는 국보(國寶)를 찍은 백패를 주었지만, 잡과 합격자 백패에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어주었을 뿐이다. 천문학, 지리학 등을 전공한 기술관과 화원, 악공 등 예능인이 이에 속했다.

연세대 허경진(국문과) 교수가 중인을 다룬 책을 발간했다. '조선의 중인들'은 문사철을 뛰어넘는 재능으로 조선의 문예부흥과 근대화를 주도한 중인에 초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축하하는 모습을 그린 '왕세자수하도'. 마마가 돌 때에는 전염을 피하기 위해 예식도 단출하게 치렀다. <알에치코리아 제공>

점을 둔다. 저자는 중인이 왕실과 사대부를 보좌하는데 그쳤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다고 평한다. "정조의 르네상스를 만든 건 사대부가 아니라 '중인'이었다"는 관점이다.

신필(神筆)로 유명한 '달마도'의 화가 김명국, 우리나라 서화를 집대성한 오세창, 그림값을 많이 주면 되레 돈을 내던 찻던 화가 최복, '가족원류'를 편찬한 가객 박효관 등은 저마다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했던 예인들이었다.

중인의 활약은 예술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졌다. 집술의 대가 허임, 신의(神醫)라 불릴 만큼 의술이 뛰어났던 백광현, 전염병 마마로부터 왕실을 구한 유상,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천재 국수(國手) 유찬홍 등은 계급의 질곡에 맞섰던 전문지식인이었다.

그뿐 아니라 중인들의 활약은 대륙과 바다를 넘나들며 확대되었다. 17, 18세기 한류를 일으킨 역관시인 홍세태, 통신사 최고의 무예사절 마상재,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 변수는 신분의 벽을



노송이 드리워진 그늘에서 바둑에 몰두한 선비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

넘어 신세계를 꿈꾸었다. 책에 등장하는 중인의 삶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다. 문헌에 근거한 역사적 기록은 조금의 인위적 가감이나 재배치가 없다.

"조선의 문예부흥기였던 정조대왕 시대 그 뒤안길에서 중인이 르네상스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지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이 시대에 중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다."

〈알에치코리아·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제도를 바꿔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이드



가족의 실패
이제상·송유미 지음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돈 때문일까? 왜 저출산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까? 일정 부분 돈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 저출산 원인을 비용 중심의 프레임보다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다.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이제상 소

장교 송유미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펴낸 '가족의 실패'는 비용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두 저자는 3남매를 둔 부부로 오랫동안 '가족'을 연구해온 동료다.

저자들은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와 자식의 수직축에서 남편과 아내의 수평축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는 자녀양육과 부모봉양이라는 전통사회의 양상을 변모시켰다. 예전에는 여성이(출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희생을 감내하면서) 자녀들을 이타적으로 양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2단계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 '남성생계 부양자-여성 주부' 가족 모형이 설득력을 상실한다. 이 구조적 양상에 따른 요인들이 겹쳐 한국형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새로운 대안의 출발점으로 최소한의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아이는 만 36개월 이상 부모의 손에서 직접 자라야 하고, 아빠도 엄마와 함께 동등하게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장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화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성출판사·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슴도치 도우치와 떠난 철학 여정



시작하는 철학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심강현 지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길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철학이 말을 건네는 순간이다. 어떻게 답을 하는게 옳은 것일까.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 안내서 '시작하는 철학여행자를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년간 철학을 공부해 온 저자 심강현은 고슴도치 '도우치'를 이용해 독자들을 철학여행으로 이끈다. 도우치는 우연히 '시간이 멈춘 철학자들의 숲'에 당도해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부터 현대철학의 선구자 니체까지 서양철학의 대가들을 차례로 만난다.

책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철학적 사유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책 전체가 도우치와 철학자의 대화로 이뤄져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들의 철학 여정에 동행할 수 있다.

〈구리·1만6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광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중신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KT, 중앙초교, 금남로, 개림동, 한화성경, 구.한미소핑, 동부소방서